

# 미국 Dialog 데이터베이스 분전기

1979년경 미국의 유명한 데이터베이스인 다이얼로그(Dialog)를 국내에서 직접 온라인 검색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다. 바로 그쯤해서 해외데이터 뱅크 시찰단을 결성하여 다이얼로그도 방문한 일이 있었고, '음향커플러에 의한 프린터단말기'라는 편리한 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인데 그 기계는 정말로 갖고 싶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라는 회사가 개발한 휴대용 기계였고 크기는 007 가방만 했다. 당시의 가격은 미화로 1500달러 정도.

이것을 손에 넣을때까지의 천신만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설명하지 않겠다. UNDP를 통해서, 외무부를 통해서, 과학기술처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1년만에 억지로 억지로 손에 넣었다. 포장을 뜯을 때는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몰랐다.

미국에서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전화선에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마음대로 찾아먹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에서는 못할게 무엇인가? 통신사정이야 어떻던 '미국에 전화걸기'가 전혀 안되는것은 안되니까 어떻게든지 해보아겠다고 마음 먹었다.

반쯤씩이나 되는 다이얼로그의 이용설명서 5권을 통달하다시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미국에 전화로서 연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체신부의 전무국장을 방문하여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라는 흔쾌한 답을 듣자 마음은 한껏 부풀었다.

당시의 국제전화는 '국제전화국'의 교환아가씨에게 "미국의 0000번이요"하고 부탁을 하면 국내에서 거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묻고서는 "30분쯤 기다리세요"하고는 감감 무소식인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

전화를 부탁했다. 연결될때까지는 화장실에도 못가고 전화기 근방에서 서성거리야 했다. 전화 벨소리(당시는 다이얼식이라서 벨소리가 요란하였음)를 듣고 수화기를 들면 "연결되었어요.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그렇게도 친절하게 느껴졌었다.

서둘러서 수화기를 음향커플러에 끼고서(제법 힘이 들어서 땀이 날 정도였다) 검색조작에 들어갔다. 수십번이 연습을 해두었던터라 금방 ID와 비밀번호를 쳐넣었다. 호스트에 연결되니까 안내문이 주루룩 나온다. 신이 났다.

이제 검색명령어를 기다리는 프롬프트가 나왔다. 검색명령어와 키워드를 넣었다. 응답이 나왔다. 그중 하나를 프린트하려고 프린트 명령을 넣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뚝 끊어졌다. 시체말로 환장할 노릇이다.

전화기를 툭툭 치면서 "교환, 교환"하고 불렀다. 언성이 높아졌다. "왜 중간에 끊어집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라고 꾸짖을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기가 찬다. "아무 말씀도 안하시던데요"

빼익하고 기계소리만 나지 사람의 말소리가 날턱이 없다. 교환양인들 처음 듣는 소리였을 게다.

설명을 했다. “여보세요.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엿듣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전화요금은 끝나고 나서 매기면 될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란다.

다시 연결되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순서대로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뚝 끊어진다. 그제서야 느꼈다. 아하... 3분마다 들어보고 대화가 계속 되면 그대로 두면서 ‘바를 正’ 자 작대기를 하나 갖고 대화가 없으면 끊어버리는 작업을 교환양이 하고 있구나라고... 또 다시 교환양을 불렀다. “제발, 중간에 엿듣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다시피 하였다. 그랬더니 이번의 교환양은 조금전의 교환양과 다르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길게 설명을 해야 했다.

세번째도 마찬가지로, 3분만에 뚝이다. 당시에 있던 직원들은 휴대용 단말기의 별명을 ‘3분뚝’이라고 불렀다. 적어도 15분 정도는 중간에 엿듣지 말고 그냥 두면 되는데 교환양들의 임무가 그렇지 않다.

다음날, 기계를 들고 국제전화국장을 방문하였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전은 이렇고 후는 이러하므로 “제발 중간에 엿듣는 일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사람좋은 전화국장은 금방 전지에다 “교환원에게 알립니다. 데이터통신연구를 협조하는 뜻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람장을 작성해 게시판에 붙이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라고 오히려 묻기까지 했다.

다음날 아침, 10시경에 다시 작업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3분뚝이다. 기가막혀서 “교환 아가씨, 게시판에 붙여둔 게시문도 안봤어요”라면서 사정 설명을 다시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시쳇말로 김새는 것이었다. “저요. 어제 비번이라 서요...” 수백명의 아가씨에게 어떻게 그걸 모두 알리냐가 문제였다.

휴대용단말기를 캐비닛에 쳐박아 두고 사용을 포기해버렸다. 그런지 얼마간 지난후에 “과학기

술처 장관께서 내일 10시반경에 그 단말기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실 것입니다. 준비해 두십시오”라는 전화가 왔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놈의 3분뚝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천우신조라고 할까...우리 직원의 부인이 국제전화국 교환으로 근무하는 분이 계셔서 매달렸다. 아침 10시부터 12시경까지 중간에 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번이지만 나가서 보조를 서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안심이 되었었다.

장관님이 11시경에 내방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성명을 넣고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검색하고 프린트해내고 그걸 보여드렸다. 만족하시는 표정이었고 직원들은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속임수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시범이후 1983년도까지는 한번도 이것을 사용한 일이 없다. ISD(International Subscriber Dialing) 제도가 실시될때까지는. 전화가입자가 교환을 통하지 않고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것 때문에 촉진된 것은 분명하다.

휴대용 단말기의 통신속도는 300bps였다. 오늘날의 감각으로는 형편없는 속도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느껴졌다. 이나마 국제전화의 후진성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했었다. 기진맥진한채 5권이나 되는 사용설명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서도 수없이 되뇌이였다. 전화가 이폴인데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한탄하면서...

그런데 언뜻 설명서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텔렉스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걸 읽고 또 읽었다. 완전히 외울수 있을 정도로. 에이...속도가 50bps밖에 안되잖아? 그리고 요금도 비싸고 한테... 그래도 3분뚝만 아니면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다음호에 계속)

(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